

글로써 대항한 종교박해

서양의 금서 이야기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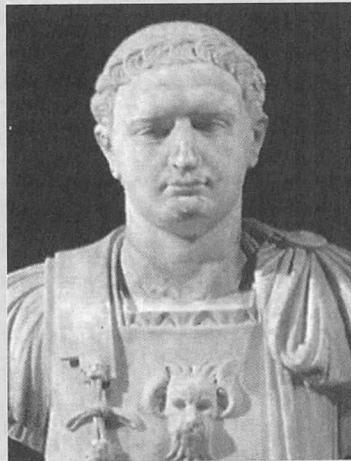
주명철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네로는 자기의 “귀염둥이” 스포루스를 거세해서 여자로 만든 뒤, 지참금을 주고 면사포를 씌워 결혼식을 올렸다. 사람들은 네로의 아버지 도미티우스가 그런 아내를 두었다면 세상은 더욱 행복했을 거라며 익살을 부렸다. 네로같은 자식이 태어나지 못했을 테니까 말이다. 네로는 어머니와 근친상간에 빠지기도 했다.

네로는 자기 몸이나 남의 몸을 더럽히고 학대하는 데 이골나고 싫증이 나자, 새로운 놀이를 고안해냈다. 그는 남녀를 말뚝에 묶어 놓게 한 뒤 맹수의 가죽을 걸친 채 우리 안에 있다가 나와서는 그들의 생식기를 공격했다. 이렇게 해서 흥분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의 해방노예 도리포루스가 마무리를 해주었다. 도리포루스는 스포루스 다음으로 네로와 결혼한 사람인데, 이번에는 네로가 도리포루스에게 시집을 가서, 첫날밤에 처녀처럼 비명을 지르거나 신음했다고 수에토니우스는 《황제 열전》에서 전한다.

오락 속에 나타난 시대의 문화

네로가 로마 황제의 전형은 아니다. 그러나 황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던 시대, 네로 같이 극도로 비정상인 황제가 재임하는 기간에도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발전시킬 수도 없겠지만, 모든 것을 다 망칠 수도 없다. 한 사람은 어떤 문화를 여러 사람과 공유하게 마련이며, 그런 문화가 다른 문화와 경쟁하는 가운데 사태를 호전시키거나 악화시키는 법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가 왕정보다 더 나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지만 그



잔혹한 놀이를 즐겼던 로마황제 네로

래도 역시 더욱 바람직한 제도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렇다면 로마 시대의 일반인은 어떻게 지냈을까? 대중의 오락 속에서 우리는 그 시대의 문화를 읽을 수 있다. 전차경주, 검투사의 싸움, 사람과 동물의 싸움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변형된 모습으로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싸움은 목숨을 걸고 하는 싸움이라 오늘날보다 더욱 잔인했다. 굶주린 맹수에게 그리스도교도를 넣어진 뒤, 맹수가 그들을 잡아 먹는 모습을 보면서 흥분하는 모습은 상식이 통하는 세계에서 공연히 볼 수 없는 장면이다. 수 세기 동안, 로마인은 더욱 이상하고 잔인하게 발전한 구경거리를 즐겼다. 그들은 수백 마리의 호랑이가 코끼리나 황소와 싸우고, 야생의 소가 동물가죽을 두른 인간을 찢어 놓고, 여성이 검투장에서 싸우고, 난쟁이가 서로 싸우도록 만들었다.

79년 제위에 오른 티투스의 치세에는 하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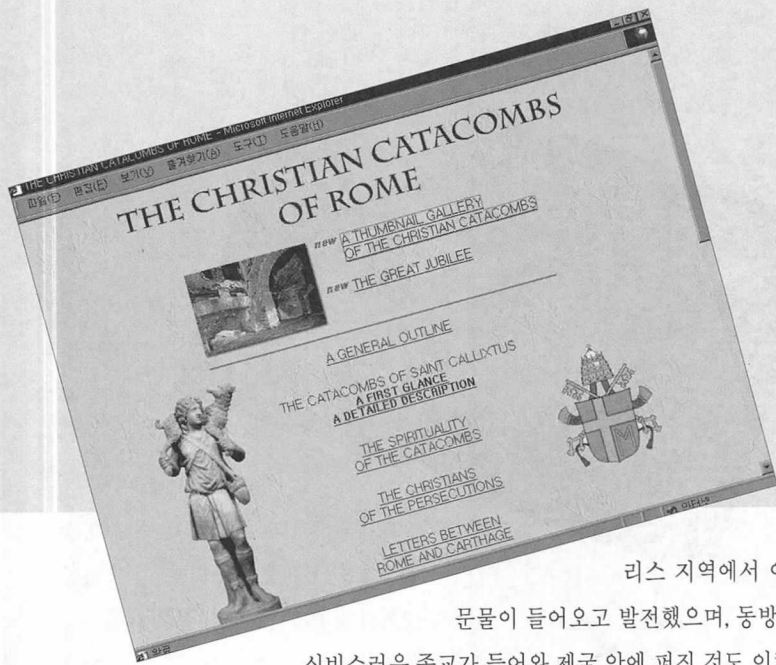
짐승을 5천 마리나 죽였다고 한다. 사실상 아프리카 무역의 대부분은 이런 경기를 위한 동물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81년까지 황제 노릇을 한 티투스는 80년에 콜로세움을 완공했는데, 오늘날 콜로세움의 폐허를 찾는 사람은 지하 통로를 통해서 검투사와 맹수가 지나다니는 것을 눈앞에 그리면서, 원형경기장의 둘레에 층층이 앉은 로마인이 엄지손가락을 (우리가 본 영화에서는 땅으로 향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로) 하늘로 향하면서 죽여! 죽여!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는 것 같은 환상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잔인한 놀이에 빠져들었던가? 아마도 놀이를 통해서 전쟁의 기억을 간직하고 물려주려는 목적이 아니었을까? 로마 제국은 이제 북으로는 영국의 가슴쯤에 하드리아누스 성벽을 쌓고, 서로는 유럽의 대서양 연안까지, 동으로는 메소포타미아까지, 남으로는 사우디 아라비아나 이집트까지 영토로 삼고, 먼저 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남이 도발하지 않는 한 평화를 즐기면서, 전쟁을 상기시키는 놀이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만족했을 것이다. 로마인이 이런 놀이를 즐겼다는 사실은 그들이 고전 휴머니즘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가치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됐음을 뜻한다.

칼리굴라, 《오디세이》 금지령

그런데 이렇게 잔인한 경기를 즐기던 사람들이 집에는 저마다 신주를 모시고 살았다는 사실은 참으로 역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모든 도시나 공동체(장인의 조합, 군부대)는 저마다 수호신을 모셨다. 로마는 유피테르, 유노, 미네르바의 3신을, 폼페이는 전설적인 창건자 헤르쿨레스, 술의 신 바쿠스, 미의 여신 베누스의 3신을 각각 모셨다. 이처럼 각 공동체는 여러 신 가운데 셋을 한 묶음으로 모시거나, 집안의 수호신, 조상신, 황제신을 모시기도 했다. 이집트에서 온 이시스 여신도 숭배의 대상이 됐다.

이렇게 볼 때, 모든 정복자는 정복을 당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로마는 영토를 확장하고 로마의 문화를 전파하는 한편, 정복지로부터 들어온 여러 가지 가치체계의 정복을 받았다. 로마가 정



카타콤베의 인터넷 홈페이지. 제정기 로마에서 그리스도교도는 황제 숭배교와 다신교를 거부하면서 미움을 샀고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

복한 그리스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물이 들어오고 발전했으며, 동방세계에서 신비스러운 종교가 들어와 제국 안에 퍼진 것도 이런 사실을 증명한다. 3세기, 로마제국의 군대가 제멋대로 황제를 즉위시키거나 폐위하는 정치적 혼란을 맞이했을 때, 사람들은 이성, 자연법이 줄 수 없는 것을 신들이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다. 고전철학은 휴머니즘에서 벗어나 이 세계를 초월한 존재를 생각하는 길로 들어섰다.

스토아 철학은 세네카, 에픽테투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지나 인생의 불행을 견디게 해줄 영적 위안과 마음의 힘을 얻는 수단이었다. 그럼에도 아직 내세에서 도피처를 구하지는 않았다. 이에 비해, 신플라톤주의는 이성을 넘어선 종교적 체계로 나아갔다. 이 철학을 가장 잘 대변한 플로티누스는 유일한 존재 또는 신과 결합하기를 바라면서, 철학을 신비주의에 종속시켰다. 그는 신이 모든 지식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지성, 이성으로 신을 이해하지도 묘사하지도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영혼만이 신비적 도약을 통해 신과 결합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종교, 신, 철학이 서로 경쟁하는 물결 속에 그리스도교가 휩싸여 있었다.

제정기에 들어선 로마에서 아우구스투스는 오비디우스를 추방했고, 광기를 부리던 칼리굴라는 35년에 그리스의 민주주의 이상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오디세이》를 읽지 못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66년, 플루타르쿠스는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을 난잡하게 생각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로마의 세계에 전파되기 시작한 그리스도교는 황제 숭배교와 다신교를 거부하면서 점점 미움을 샀고, 여러 가지 나쁜 억측에 따른 비난과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 물론 박해는 3세기에 가서 더욱 잦아지고 거세졌지만, 그 전에도 간헐적으로 몰아닥쳤다. 그리스도교도는 국가에 반역하는 무신론자이고, 인류 전체를 증오하며, 갖가지 파렴치한 범죄, 혼음, 어린이 살해와 식인을 일삼는 무

로마는 영토를 확장하고 로마의 문화를 전파하는 한편, 정복지로부터 들어온 여러 가지 가치체계의 정복을 받았다. 로마가 정복한 그리스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물이 들어오고 발전했으며, 동방세계에서 신비스러운 종교가 들어와 제국 안에 퍼진 것도 이런 사실을 증명한다.

리라는 죄를 뒤집어 썼다.

'이상하고 불법적'인 종교

인터넷의 카타콤베 홈페이지(www.catacom-be.roma.it)에 들어가면 그리스도교가 그리 나쁜 종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의 호교론(apologia)을 볼 수 있다. 당시 그리스도교도는 이처럼 오직 글만 가지고 편견과 박해에 대항했다. 그러나 원로원은 53년 그리스도교가 "이상하고 불법적"인 종교로서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공식 견해를 발표했다. 5현제 시대에는 비교적 박해가 덜했다. 우리는 이 시대 로마의 지식인 관리로부터 그리스도교도의 삶을 전해 들을 수 있다. 특히 111년부터 113년까지 폰투스의 총독에 취임한 소 플리니우스는 트라야누스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교에 대해 보고한다.

"그들(그리스도교도)은 날을 받아 놓고 새벽에 만나서 신과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범죄를 짓지 않고, 사기나 도둑질, 또는 간음을 ...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일밖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맹세한 뒤, 그들은 헤어졌다가 다시 모여 아주 소박한 음식을 나눠 먹곤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폐하의 명을 받들어 정치 모임을 금지시킨 뒤로는, 이런 모임마저 갖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들 가운데서 집사 노릇을 하는 여자 노예 둘을 고문하면서 진실을 캐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타락하고 도가 지나친 미신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를 공인하는 밀라노 칙령이 나오기 200년 전의 일이다. ●